

제161호(2018. 1. 30.)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박혜진



목 차
contents

1. 조사 개요	1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2
3. 농업·농촌에 대한 현안 인식과 정책 수요	8
4. 농업인 의식과 농업경영 여건 변화	16
5. 시사점	19

감 수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061-820-2173	jkpark@krei.re.kr
내 용 문 의	송성환 전문연구원	061-820-2325	song9370@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1.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111-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높게 평가, 타 산업 대비 ‘부정적’으로 인식**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42%, 도시민의 60%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응답함.
 - 타 산업 대비 농업에 대해 농업인 68%, 도시민 37%가 부정적으로 인식, 부정적 인식 비율은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도시민의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 도시민 54%가 ‘찬성’
- **수입산 대비 국산 농산물의 전반적 평가 좋으나,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한 불안감 느껴**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수입 농산물 대비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신선도’, ‘맛’에 대해 높게 평가
 -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농업인의 68%, 도시민의 54%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농업인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음.
- **도시민의 과반, 농촌은 ‘복지시설 미흡한 곳’으로 인식, 농촌복지 예산 증대에 ‘찬성’**
 - 도시민의 49%,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
 - 도시민의 51%,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찬성’
- **도시민 대부분 농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시하며, ‘국산 비싸면 수입산 구매’ 의향 증가**
 - 도시민의 91%, 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시, 다음으로 ‘가격’, ‘지리적 원산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수입 개방확대 시, 농식품의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34%로 전년(29%)보다 증가
- **농업인 39%, 농업종사에 ‘불만족’, 최근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일손 부족’**
 - 농업인의 39%, 농업종사에 ‘불만족(낮음)’, ‘만족한다(높음)’는 18%에 그쳐, ‘불만족’ 이유에 대해 농업인의 60%,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응답
 - 농업인의 17%, 최근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FTA 등 개방 확대’, ‘농업 생산비 증가’

01 | 조사 개요

도시민 1,500명, 농업인 936명 등 2,436명 조사

1.1. 조사 배경과 설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와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함.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원한 1978년부터 시작해 1999년까지는 비정기 조사로 시행되어 정책수립 등에 활용되었음.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정례 조사로 실시되어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도시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로 발전하였음.

1.2. 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¹⁾
-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정 문항과 정책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의식변화와 정책현안 등 일부 결과만을 정리함.

〈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	■ 전국 도시지역(洞部)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지역	■ 전국(제주 포함)	■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 936명	■ 1,500명
조사 방법	■ 우편조사	■ 가구 방문 면접조사
표본 추출 방법	■ 전국 읍면 독농가	■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 고정표본 사용	■ $\pm 2.5\%p$
조사 수집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1)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주)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02 |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농업의 중요성,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공감하나, 타 산업 대비 부정적 인식

2.1.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인식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42% , 도시민의 60% 공감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각 41.5%, 60.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중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는 항목에 도시민은 3.5%가 응답한 반면, 농업인은 16.0%가 응답하여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무응답
농업인	936	16.0	26.3	14.9	41.5	1.4
도시민	1,500	3.5	17.7	18.8	60.0	0.0

-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이바지’, ‘일자리 창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 등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경관 훼손’,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경관 훼손’에 대한 항목은 도시민보다 농업인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무응답	평균 (점/10.0)
식량의 안정적 공급한다	농업인	936	7.9	23.8	61.5	1.7	5.0	6.81
	도시민	1,500	7.6	12.5	79.9	0.0	0.0	6.88
국토의 균형발전 이바지	농업인	936	16.5	24.9	50.4	2.5	5.8	6.12
	도시민	1,500	9.1	16.4	74.5	0.0	0.0	6.59
일자리 창출	농업인	936	24.1	26.2	42.5	1.5	5.7	5.69
	도시민	1,500	27.3	24.7	48.1	0.0	0.0	5.46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농업인	936	8.4	18.7	66.0	1.2	5.7	7.07
	도시민	1,500	8.9	16.9	74.3	0.0	0.0	6.61
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	농업인	936	15.1	25.0	53.2	0.9	5.9	6.28
	도시민	1,500	8.1	11.7	80.2	0.0	0.0	6.87
식품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농업인	936	40.7	31.0	20.7	1.2	6.4	4.41
	도시민	1,500	46.3	23.5	30.2	0.0	0.0	4.70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경관 훼손	농업인	936	22.1	21.6	49.0	1.2	6.1	5.92
	도시민	1,500	42.2	24.7	33.1	0.0	0.0	4.88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	농업인	936	37.3	27.6	28.0	1.3	5.9	4.66
	도시민	1,500	28.1	27.5	44.4	0.0	0.0	5.35

-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질문한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인의 비율이 68.2%로 도시민(37.3%)보다 높았음.

〈표 4〉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이다		소계	비슷하다	매우 긍정적이다		소계	모름/무응답	평균 (점/5.0)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농업인	936	10.4	57.8	68.2	13.9	14.5	0.9	15.4	2.6	2.36
도시민	1,500	0.9	36.5	37.3	33.3	29.1	0.3	29.4	0.0	2.92

□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에 대한 인식, 농업인과 도시민 간 시각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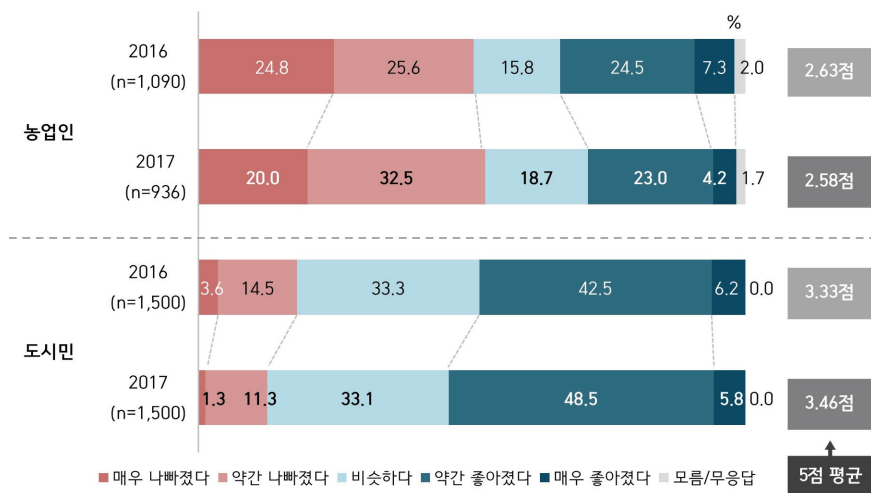
-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시민의 과반이 ‘좋아졌다(54.3%)’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은 27.1%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함. 도시민이 농업인에 비해 현재 농업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10년 전 대비 ‘좋아졌다’는 응답은 농업인에서는 2016년 대비 감소(31.8%→27.1%)한 반면, 도시민에서는 증가(48.7%→54.3%)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빠졌다’는 의견 또한 농업인에서는 증가하였고, 도시민에서는 감소하여 2016년에 대비 2017년 농업상황에 대해 농업인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5〉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슷하다				모름/ 무응답	평균 (점/5.0)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소계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소계		
농업인	936	20.0	32.5	52.5	18.7	23.0	4.2	27.1	1.7	2.58
도시민	1,500	1.3	11.3	12.6	33.1	48.5	5.8	54.3	0.0	3.46

〈그림 1〉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_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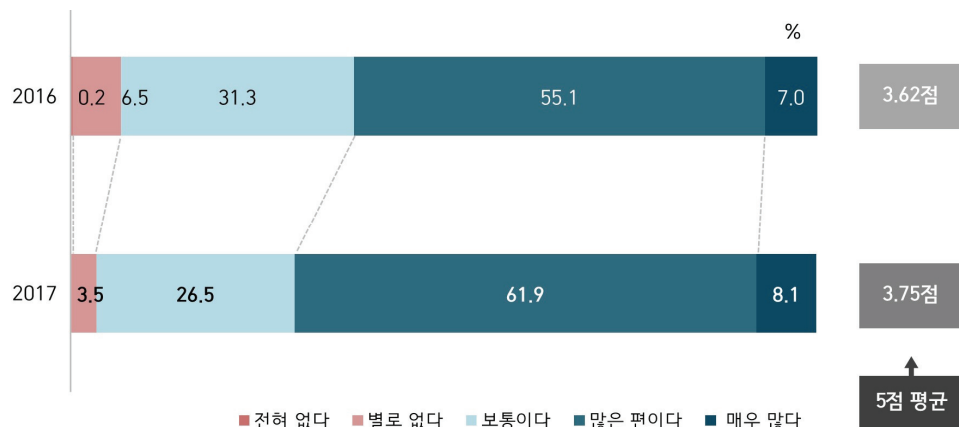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시민의 10명 중 7명이 ‘많다(70.0%)’고 응답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음.
- 60세 이상(78.6%), 농촌 거주 경험자(77.7%), 농촌인 가족이 있는 응답자(81.7%)에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익적 기능이 ‘많다(70.0%)’는 응답은 2016년(62.1%) 대비 7.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이다			소계	평균 (점/5.0)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소계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전체		1,500	0.0	3.5	3.5	26.5	61.9	8.1	70.0	3.75
연령별	19~29세	275	0.0	5.1	5.1	38.2	52.0	4.7	56.7	3.56
	30대	275	0.0	3.6	3.6	29.8	58.2	8.4	66.5	3.71
	40대	316	0.0	3.5	3.5	24.1	63.9	8.5	72.5	3.78
	50대	297	0.0	3.0	3.0	23.9	64.6	8.4	73.1	3.78
	60세 이상	337	0.0	2.4	2.4	19.0	68.8	9.8	78.6	3.86
농촌 거주경험	있다	687	0.0	2.8	2.8	19.5	67.8	9.9	77.7	3.85
	없다	813	0.0	4.1	4.1	32.5	56.9	6.5	63.5	3.66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36	0.0	2.3	2.3	16.1	68.6	13.1	81.7	3.92
	없다	1,064	0.0	3.9	3.9	30.8	59.2	6.0	65.2	3.67

〈그림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여부_연도별 비교



○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과반이(53.8%) ‘찬성한다’고 응답함. 2016년(54.6%)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적극 찬성한 다(9.6%)’는 비율은 2016년(1.4%)에 비해 8.2%p 증가하였음.

〈표 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잘 모르겠다	평균 (점/5.0)
		적극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소계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	소계		
2016	1,500	6.6	32.2	38.8	53.2	1.4	54.6	6.6	2.53
2017	1,500	2.7	38.7	41.4	44.2	9.6	53.8	4.8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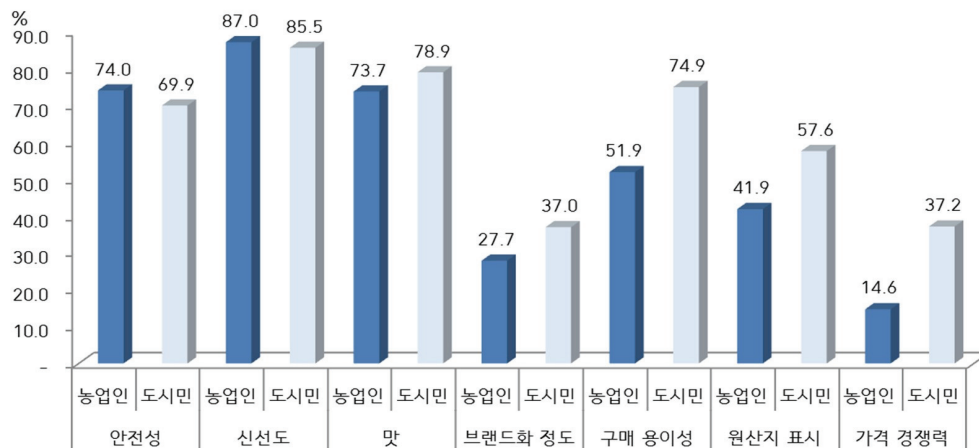
국산 농산물의 평가 긍정적이나,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한 불안감 높아

2.2. 국산 농산물의 평가와 식량 수급에 대한 인식

□ 수입 농산물과 비교하여 국산 농산물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74.0%, 69.9%)’, ‘신선도(87.0%, 85.5%)’, ‘맛(73.7%, 78.9%)’에 대해서는 국산 농산물이 좋다고 평가

○ ‘브랜드화 정도’, ‘가격 경쟁력’ 항목은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민보다 농업인의 수입 농산물 대비 국산 농산물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 수입 농산물 대비 국산 농산물의 긍정평가 비율



주: 조사치는 각 항목별 ‘대체로 좋다’와 ‘매우 좋다’의 합계치임.

□ 농업인의 68%, 도시민의 54%,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한 불안감 느껴

○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하여 농업인의 67.7%, 도시민의 53.7%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이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8〉 우리나라 장래 식량수급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모르겠다	무응답	평균 (점/5.0)
		매우 불안하다	어느 정도 불안하다	소계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소계			
농업인	936	19.0	48.7	67.7	18.4	7.1	25.4	2.6	4.3	2.14
도시민	1,500	2.5	51.2	53.7	33.0	6.9	39.9	6.4	0.0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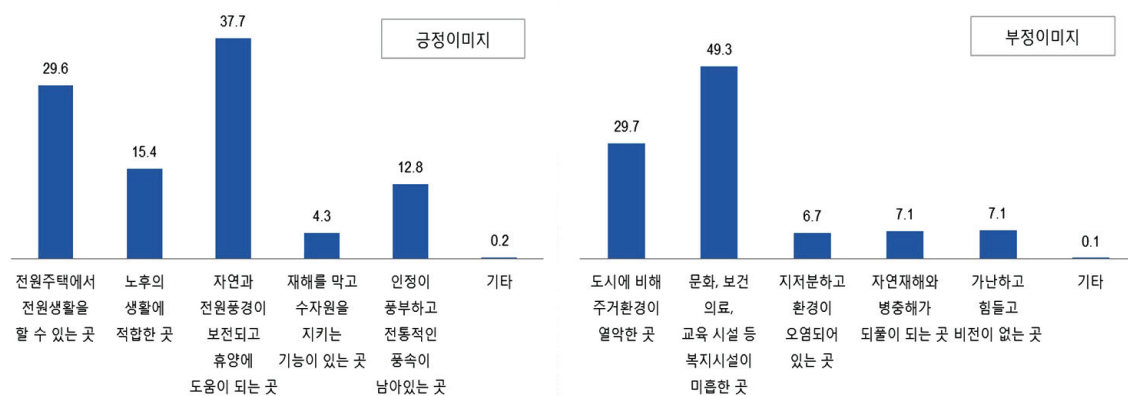
도시민의 과반, 농촌은 복지 미흡한 곳으로 인식, 농촌복지 예산 증대에 찬성

2.3.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 도시민, 농촌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는 곳’이지만 ‘복지 미흡한 곳’으로 인식

-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음.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는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라는 인식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29.7%)’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 음.

〈그림 4〉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치임.

□ 도시민의 과반,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찬성

- 도시민에게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51.3%)’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음.

〈표 9〉 도시민의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반대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평균 (점/5.0)
			적극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소계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	소계	
전체		1,500	0.8	14.0	14.8	33.9	47.1	4.1	51.3	3.40
농촌인 가족 여부	있다	436	0.0	10.1	10.1	24.8	56.0	9.2	65.1	3.64
	없다	1,064	1.1	15.6	16.7	37.7	43.5	2.1	45.6	3.30

03 | 농업·농촌에 대한 현안 인식과 정책 수요

식품안전성 문제와 청탁금지법 시행, 농축산물 소비에 영향

3.1. 식품안전성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견해

□ 식품안전성 문제, 「청탁금지법」 시행이 농축산물 소비량 및 외식 수요 변화에 큰 영향 미쳐

- 최근 가축질병, 살충제 달걀 사태 등의 식품안전성 문제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의 86.2%, 도시민의 85.6%가 '있다'라고 응답함.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식품안전성 문제가 국내 농축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식품안전성 문제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잘 모르겠다	무응답	평균 (점/5.0)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소계	조금 있다	매우 많다	소계			
농업인	936	0.7	7.5	8.2	38.0	48.2	86.2	2.5	3.1	3.42
도시민	1,500	0.4	12.3	12.7	36.1	49.5	85.6	1.7	0.0	3.40

- 「청탁금지법」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농업인은 83.8%, 도시민은 77.2%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6.6%p 높게 나타남.
- 한편, 농업인의 과반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매우 많다(51.6%)'고 응답하여 도시민에 비해 청탁금지법의 영향력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1〉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잘 모르겠다	무응답	평균 (점/5.0)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소계	조금 있다	매우 많다	소계			
농업인	936	1.6	8.2	9.8	32.2	51.6	83.8	3.3	3.1	3.48
도시민	1,500	1.1	18.9	20.1	47.9	29.3	77.2	2.7	0.0	3.14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농업분야 발전 기대치 높아, 최저임금 인상 위기감 높아

3.2. 4차 산업혁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따른 농업 분야 발전에 대한 기대치 높아

-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드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농업 생산 및 판매, 농촌 생활에 적용·확대될 경우,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시민은 58.3%가 ‘높다’고 응답하여 농업인(50.4%)보다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낮다’는 응답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2〉 4차 산업혁명이 농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이다				모름/ 무응답	평균 (점/5.0)
		매우 낮다	조금 낮다	소계		조금 높다	매우 높다	소계		
농업인	936	1.0	8.4	9.4	37.2	44.9	5.6	50.4	3.0	3.47
도시민	1,500	0.3	7.3	7.6	34.1	51.9	6.4	58.3	0.0	3.57

□ 최저임금 인상의 농업분야 영향 심각, 농업인의 체감도 도시민 보다 높아

-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업인의 88.0%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민은 응답자의 82.9%가 ‘많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매우 많다’는 의견은 농업인이 66.2%로 도시민(28.7%)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3〉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잘 모르겠다	무응답	평균 (점/5.0)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소계	조금 있다	매우 많다	소계			
농업인	936	0.4	6.0	6.4	21.8	66.2	88.0	2.5	3.1	3.66
도시민	1,500	0.5	14.5	15.1	54.2	28.7	82.9	2.0	0.0	3.17

새 정부 농정 기본방향에 공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3.3.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견해

□ 새 정부 농정 기본방향에 대해 과반 이상이 공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최근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에 새 정부는 농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질문한 결과,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도시민은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76.0%)' 정책에 대해, 농업인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59.4%)' 정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4〉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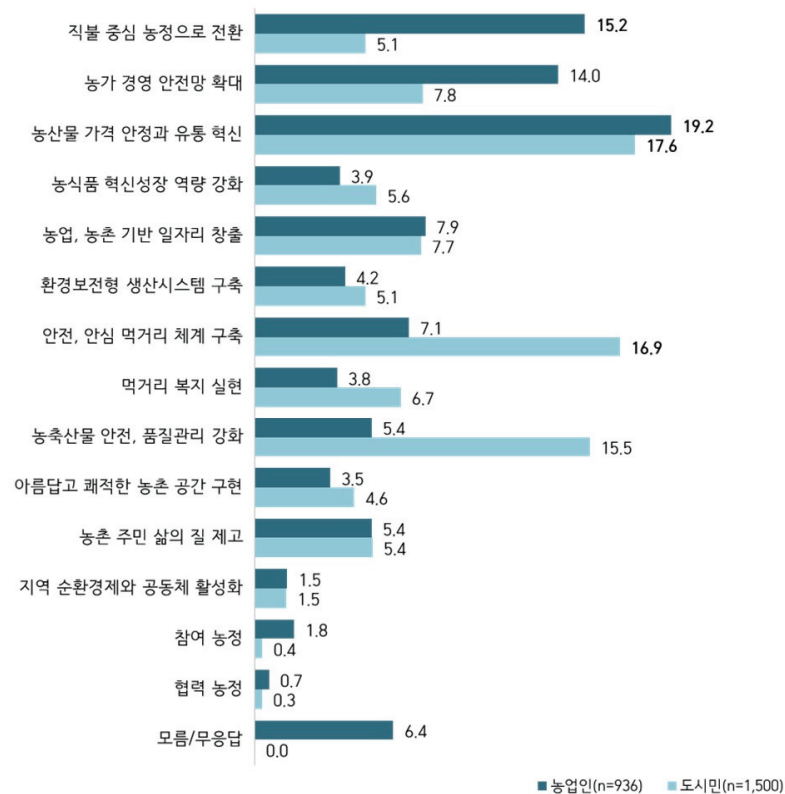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음	무응답	평균 (점/10.0)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소득, 삶의 질 제고	농업인	936	10.1	21.3	56.3	5.2	7.1	6.63
	도시민	1,500	8.0	18.3	73.5	0.0	0.1	6.51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농업인	936	10.5	23.9	54.3	4.0	7.4	6.50
	도시민	1,500	7.3	16.7	76.0	0.0	0.0	6.68
국민 전체로의 농정고객 확대	농업인	936	13.8	22.6	51.7	4.4	7.5	6.42
	도시민	1,500	10.5	22.7	66.7	0.0	0.0	6.36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농업인 위상 재정립	농업인	936	10.8	18.3	59.4	4.3	7.3	6.73
	도시민	1,500	9.4	21.6	69.0	0.0	0.0	6.33
지방정부와 다양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치 농정	농업인	936	10.7	20.3	57.7	4.1	7.3	6.72
	도시민	1,500	6.8	24.7	68.5	0.0	0.1	6.35

□ 새 정부의 최우선 농정과제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을 인식,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성,’ 농업인은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컸음.

- 새 정부의 주요 농정과제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조사한 결과(4 순위, 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각 19.2%, 17.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민은 ‘안전,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16.9%)’, ‘농축산물 안전, 품질관리 강화(15.5%)’의 순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컸음.
- 반면, 농업인은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15.2%)’, ‘농가 경영 안전망 확대(14.0%)’의 순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컸음.

〈그림 5〉 주요 농정 과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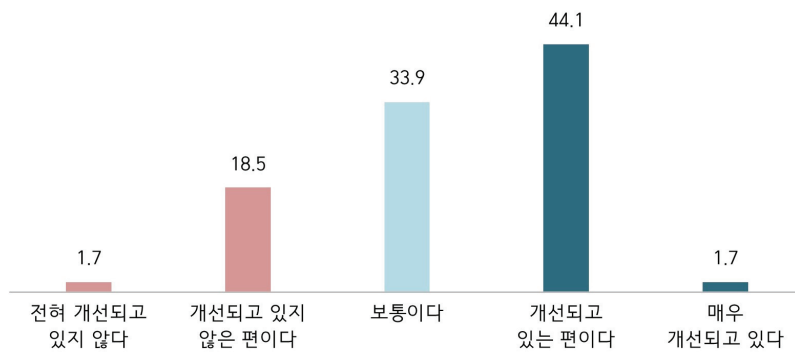
도시민, 우리 농식품 안전성에 대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

3.4. 소비자로서 농식품에 대한 인식

□ 도시민 46% '우리 농식품 안전성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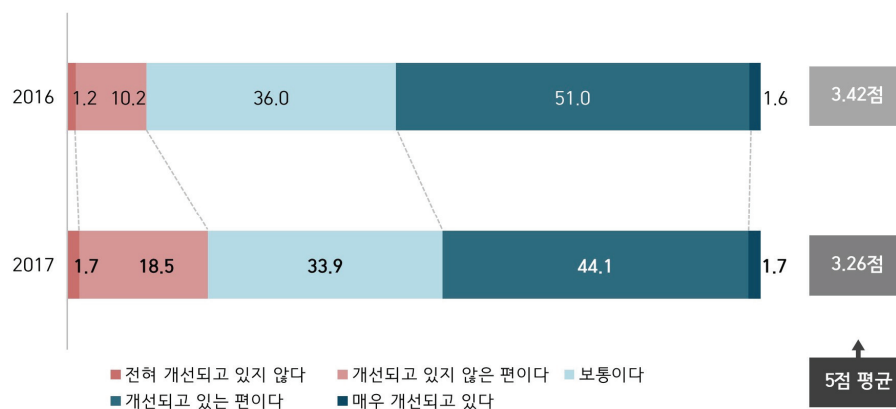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시민 45.8%는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0.2%에 그쳐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함.

〈그림 6〉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 농식품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45.8%)'는 응답은 2016년(52.6%) 대비 6.8%p 감소한 반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9%p 증가(11.4%→20.2%)하여 농식품 안전성 개선의 부정적 인식이 2016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2017년 가축질병 발생, 살충제 달걀 사태 등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7〉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_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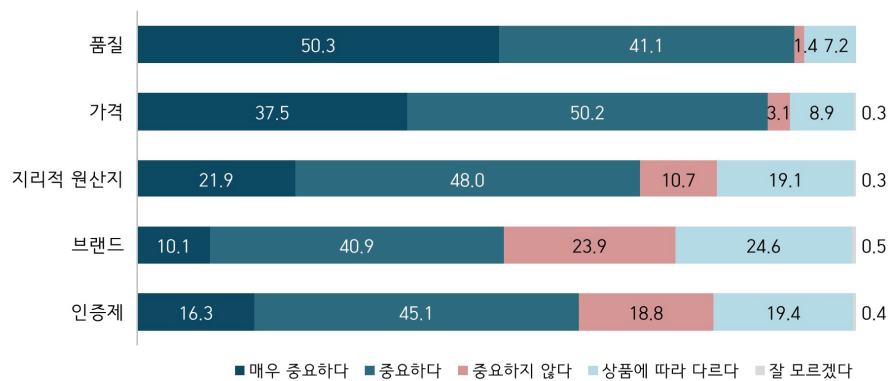


도시민, 식품 구매 및 외식 시 품질 최우선 고려

□ 도시민의 과반, 식품 구매 및 외식 시 품질 최우선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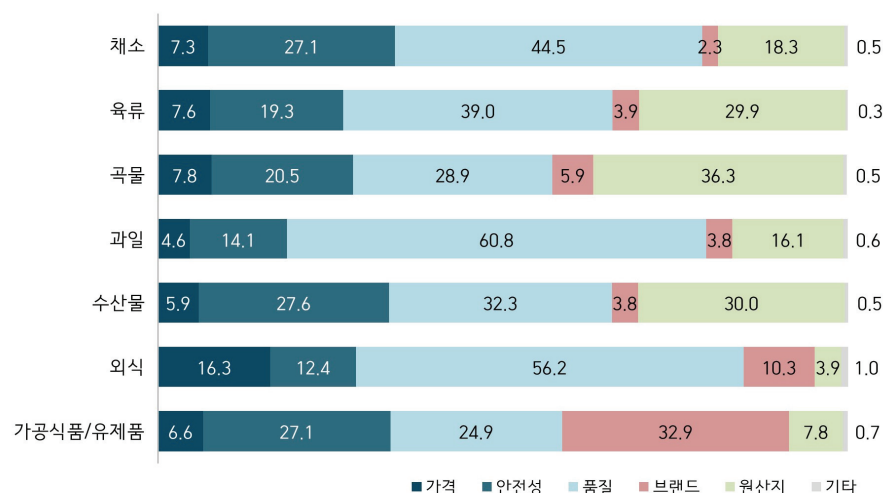
- 식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87.7%)’, ‘지리적 원산지(6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8〉 식품 구매 시 중요 정도(%)



- 부류별로는, 채소, 육류, 과일, 수산물, 외식 항목에서는 ‘품질(44.5%, 39.0%, 60.8%, 32.3%, 56.2%)’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곡물의 경우에는 ‘원산지(36.3%)’, 가공식품 및 유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32.9%)’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9〉 부류별 식품 구매 또는 외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



도시민, 농산물 구매 시 원산지보다 품질 우선, 우리 농산물 구매 충성도 전년보다 하락

□ 도시민 “농산물 구매 시 품질 우선하겠다”...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 구입’ 비율 전년보다 감소

- 농산물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할지 질문한 결과,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34.4%)’,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매(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계층별로 살펴보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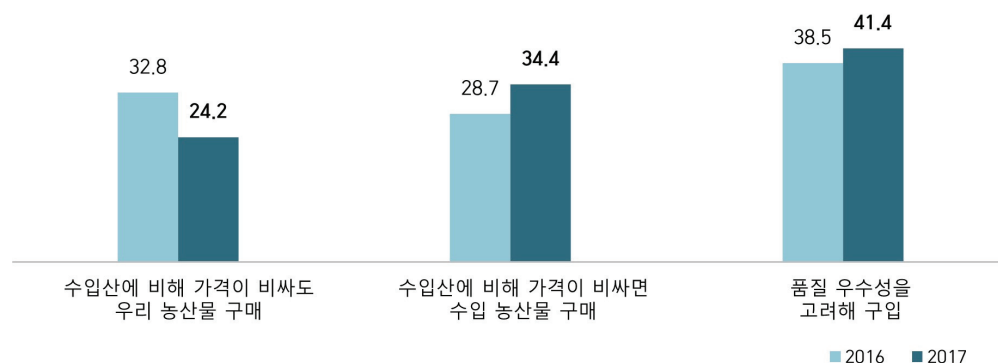
〈표 15〉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 구매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
전체		1,500	24.2	34.4	41.4
연령별	40대 미만	550	18.2	36.0	45.8
	40대	316	24.7	33.9	41.5
	50대	297	28.3	35.0	36.7
	60세 이상	337	30.0	31.8	38.3

-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38.5%→41.4%)’한다는 의견과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28.7%→34.4%)’한다는 의견은 2016년 대비 증가함.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24.2%)’한다는 의견은 2016년(32.8%) 대비 감소하여, 무조건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는 충성도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 의향_연도별 비교(%)



도시민, 10명 중 4명 귀농·귀촌 희망하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어

3.5.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 도시민 10명 4명 귀농·귀촌 희망, 50대 귀농·귀촌 희망 비율 가장 높아

- 도시민에게 은퇴 후 귀농·귀촌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3.9%)이 ‘없다’고 응답하여, ‘있다(44.1%)’에 비해 9.8%p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50대가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가장 많으며, 30대 이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귀농·귀촌에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44.1%로 2016년(41.3%)대비 2.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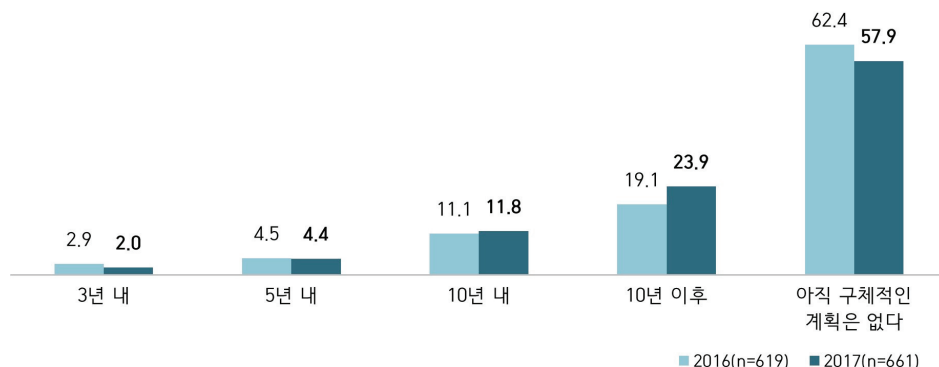
〈표 16〉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전혀	별로	소계	조금	매우	소계	
	전체	1,500	20.2	33.7	53.9	25.4	18.7	44.1	2.0
연령별	30대 이하	550	27.5	38.2	65.6	20.5	10.7	31.3	3.1
	40대	316	18.0	28.8	46.8	33.5	18.0	51.6	1.6
	50대	297	14.8	27.9	42.8	28.3	27.9	56.2	1.0
	60세 이상	337	15.1	36.2	51.3	23.1	24.0	47.2	1.5

- 귀농·귀촌 의향자(n=661) 중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 57.9%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함.
- 계층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까운 시일 내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농촌 거주 경험이 있고,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계획이 더 구체적이었음.

〈그림 11〉 귀농·귀촌의 구체적 시기(%)



04 | 농업인 의식과 농업경영 여건 변화

농업인 10명 중 4명, 농업종사에 불만족, '일손 부족'이 농업경영의 최대 위협요소

4.1. 농업경영 여건 변화와 향후 영농 의지

□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낮으며,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커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높음)'는 응답이 17.6%로, '불만이다(낮음)'는 응답(38.5%)에 비해 20.9%p 낮게 나타났다.
-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는 '불만이다(54.3%)'가 과반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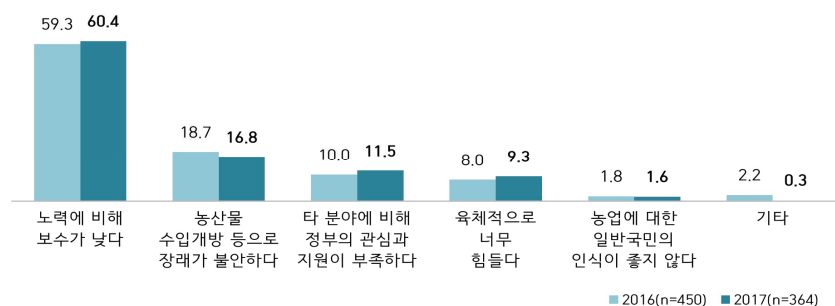
〈표 17〉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모름/ 무응답	평균 (점/5.0)
		매우 낮음	다소 낮음	소계		다소 높음	매우 높음	소계		
전반적 만족 정도	936	11.0	27.5	38.5	39.9	15.0	2.7	17.6	4.1	2.70
영농에 대한 만족 정도	936	7.4	27.5	34.8	39.7	16.0	2.9	18.9	6.5	2.78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936	19.9	34.4	54.3	28.6	8.5	1.8	10.4	6.7	2.34

- 불만족 응답자(n=364)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농업인 10명 중 6명이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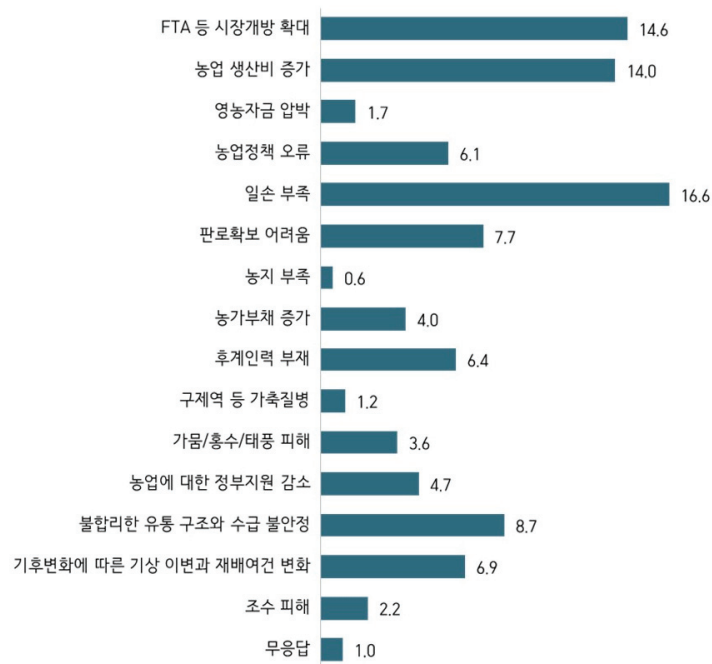
〈그림 12〉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사유(%)



□ 농업경영 최대 위협요소는 ‘일손 부족’

-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을 가장 많이(16.6%) 꼽았음. 다음으로 ‘FTA 등 시장개방 확대(14.6%)’, ‘농업 생산비 증가(14.0%)’,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8.7%)’, ‘판로 확보 어려움(7.7%)’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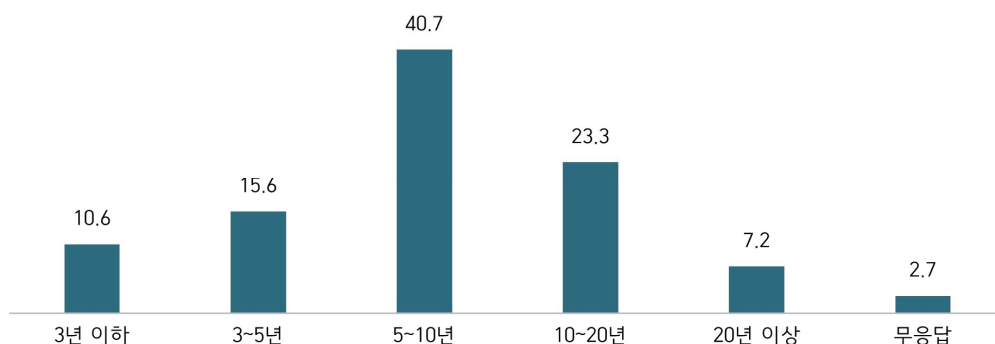
〈그림 13〉 농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중복응답, %)



□ 농업인 10명 중 4명, 향후 농업 경영활동 계획 기간 5~10년 정도

- 향후 농업경영활동 계획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10명 중 4명은 ‘5~10년(40.7%)’이라고 응답하였음. ‘10~20년(23.3%)’, ‘3~5년(15.6%)’, ‘3년 이하(10.6%)’, ‘20년 이상(7.2%)’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4〉 향후 농업 경영활동 계획 기간(%)



농업인, 농촌 생활의 만족도 높으나, 소득원 및 일자리에 대해서는 불만족

4.2. 농촌 생활의 만족도

□ 농업인 40%, 농촌 생활에 만족하나, '소득원 및 일자리'에 대해서는 60%가 불만족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40.7%)'가 '불만이다(21.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연평균 농업소득 2천만 원 이상, 전체 농가소득 3천만 원 이상에서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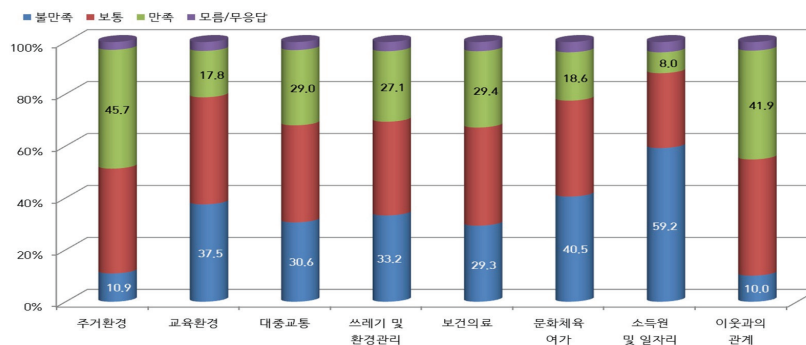
〈표 18〉 농업인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저 그렇다				모름/ 무응답	평균 (점/5.0)
			매우 불만	약간 불만	소계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소계		
전체		936	4.6	16.5	21.0	35.3	32.5	8.2	40.7	3.0	3.24
농업소득	2천만 원 미만	369	7.0	18.2	25.2	40.7	25.5	5.7	31.2	3.0	3.05
	2천만 원 이상	369	2.4	14.9	17.3	28.7	37.9	12.5	50.4	3.5	3.45
전체	3천만 원 미만	380	7.1	18.9	26.1	40.0	24.7	5.5	30.3	3.7	3.03
농가소득	3천만 원 이상	357	2.2	14.0	16.2	28.9	39.2	12.9	52.1	2.8	3.48

- 농업인의 농촌 생활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5.7%로 가장 높았고, '이웃과의 관계', '보건의료', '대중교통'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소득원 및 일자리'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체육 여가', '교육환경'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그림 15〉 농업인의 분야별 농촌 생활 만족도



05 | 시사점

□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민의 60%는 농업이 국가 경제에 있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음.
-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농업인의 부정 인식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의 가치, 중요성,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도시민, 농산물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비율은 전년보다 줄어, 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통 개선 등을 통해 가격 안정 필요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전성, 신선도, 맛에 대해서는 수입 농산물 대비 국산 농산물이 좋다고 평가하였으나, 브랜드화 정도, 가격 경쟁력은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도시민의 경우, 농산물 구매에 있어,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의견은 2016년보다 감소함.
-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요구됨.

□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가 낮으며, 불만족 이유의 60%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응답함.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최대 위협요소는 ‘일손 부족’이며, 농산물의 가격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귀농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결과, ‘만족(높음)’이 17.6%, ‘불만족(낮음)’이 38.5%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불만족 농업인의 60%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일손 부족’을 최대 위협요소로 꼽았음.
-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확대와 후계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